

상담 대학원생들의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문화성향에 따른 다문화 감수성의 차이*

하정희¹ · 장한소리^{2*}

¹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교수, ²(미)톨레도 주립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한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는데 방해하는 하나의 성격 요인으로 여겨졌던 ‘실수염려 완벽주의’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문화성향과 조합하였을 때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209명의 상담전공(학교상담, 성인상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들이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유형에 따라 형성된 군집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자신도’에 있어서 집단주의 성향이 우세하며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고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이 수직주의가 높고 실수염려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자신도가 더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주의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집단주의가 우세하며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 및 수직주의가 우세하며 실수염려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에 있어서 상호작용 주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참여도’에 있어서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낮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인 집단이 수직주의가 우세하고 높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참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실수염려 완벽주의, 문화성향, 다문화 감수성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 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9년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한소리 / (미) 톨레도 주립대학교 상담학과 조교수 / 2801 W. Bancroft St, Toledo, OH, USA / Tel: 1-419-53-6125 / E-mail: hansori.jang@utoledo.edu

서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전문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상담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상담자는 치료적 기법이나 효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 가치관, 정체성, 성격, 그리고 주된 문화 성향이 내담자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APA, 2002). 이러한 시도는 상담자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감수성이란, 타문화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수용을 의미한다(Resnicow et al., 2000). 이러한 개념을 상담에 적용을 하자면, 상담자가 내담자가 속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이해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상담자가 다문화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요소이다. 지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 감수성은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의 만족도와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은 상담자는 내담자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간 문화적 충돌이 있을 때에 열린 자세로 문제를 해결한다(Sue & Sue, 2008). 반면에 다문화 감수성이 낮은 상담자는 상담자 본인의 문화적 가치관을 상담장면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내담자가 느끼기에 상담자가 자신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담자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Constantine, 2002).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문화 감수성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Chen과 Starosta(2000)는 다문화 감수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면서 구성요소를 총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참여도’는 나와는 다른 문화에 속한 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화차이 존중도’는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작용 자신도’는 문화간 의사소통 중에 자신감 있게 상호교류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호작용 향유도’는 문화간의 의사소통에서 상호교류 간에 느끼는 즐거움을 말하며 ‘상호작용 주의도’는 문화 간 의사소통 중에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의미한다.Bidell(2012)은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상담자의 기질적인 측면(타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과 경험적인 측면(다문화적 지식 및 인식)으로 보았다. 기질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개방적 태도는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 고유의 개인적 특성, 가치, 신념 그리고 경험들을 비판적인 태도 없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경험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다문화적 지식 및 인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세계관, 가정, 태도, 가치관, 신념, 편견,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집단 지위, 권력, 혹은 차별적 경험 등, 내담자의 성격과 현재의 모습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Ratts et al., 2016). 최근에는 우리나라 상담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다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임은미 외(2018)는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를 개발하면서 상담자의 문화적 수용능력, 다문화적 지식습득, 그리고 문화의 영향 조절 노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슷한 개념으로 Sue 외(2008)는 상담자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가진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이란 기질적인 측면

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는 유년시절 경험, 지식과 교육, 성격 및 가치관, 인지적 편견 등을 포함한다(Bidell, 2012). 이 중, 상담자 개인이 가진 성격은 상담 형태나 내담자와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Constantine, 2002).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다문화감수성을 강조하면서 상담자의 개인적 성격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권위주의적 성격(김보라, 2020), 사회계층 편향성(변상우, 2020), 완벽주의(하정희, 2013) 등이 있다. 하정희(201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가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경우,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비 상담자의 완벽주의적 성격이 다문화에 관하여 단순히 태도 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요소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및 인식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는 다문화감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성격 특성 가운데 ‘완벽주의’를 상정하였는데, Wang 외(2014)는 완벽주의 성격은 다문화감수성을 키우는데 있어서 하나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완벽주의’란 완전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의미한다(Ha, 2012; Stoeber & Otto, 2006). 완벽주의는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 즉, 다차원적으로 개념화 되었다. Frost 외(1990)에 의하면, 적응적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예, 높은 개인적 기준). 반면에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실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개념을 말한다(예, 실수염려 완벽주의). 실수염려 완벽주의란 실수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박에 의하여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완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Frost

et al., 1990). 실수염려 완벽주의는 이분법적 사고와도 높은 상관을 이루었는데,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경직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패턴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Egan et al., 2007; Ha, 201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분법적 사고 경향을 가진 실수염려 완벽주의가 다문화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서 더 나아가 환경적 특성까지 고려하여 함께 이해하고자 하였다.

환경적 요인은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 학습적 환경, 그리고 문화적 성향을 포괄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 중 문화적 성향은 개인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환경적 특성을 의미한다(Triandis, 1995). Hofstede(1980)는 문화적 성향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개념화함으로써 개인들의 문화적 성향에 관한 차이를 이해하고자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적 성향에 있어서 개인주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집단주의는 개인이 속한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선순위로 둔다. 개인주의-집단주의 패러다임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통해 주요한 변인으로 사용되어 왔고, 특히 문화 간 성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주 사용되었다(Oyserman et al., 2002). 한편, Singelis 외(1995)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개인주의든 집단주의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직적’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동

양 문화권은 집단주의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를 단순히 집단 간 차이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수직적 문화 특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수평적 문화 특성을 가지는지도 함께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Triandis, 1995). Nelson과 Shavitt(2002)에 의하면, ‘수평적’인 문화는 평등을 중시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을 강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수직적’인 문화는 개인을 계층에 따라 구분하려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개인주의-집합주의는 수직적-수평적 차원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직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 수직적 집합주의, 수평적 집합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만의 것을 가지길 원하는 반면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늘 특별하고 독창적이길 원한다.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희생하려는 태도를 가지며,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속한 집단의 가치와 자신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한다(Triandis, 1995).

국내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포함하는 문화성향이 다문화 감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덕 외(2011)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개인과 집단, 수직주의와 수평주의를 고려한 네 가지 문화성향 중에서 수직주의가 다문화 감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수평주의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해원(2017) 또한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다문화 감수성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

는 예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Wang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들은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들보다 낮은 수준의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수직적 집단주의 혹은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개개인이 가진 고유의 특성 자체를 그가 가진 하나의 독립된 문화로 간주하기 보다는 사회가 규정한 문화를 더 우선시 하며, 이로 인해 더 낮은 수준의 다문화 감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담자의 가치관과 문화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다문화 감수성이 수직적 개인주의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다문화 감수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수평적 집단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또한 개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의 조화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직적 집단주의에 속한 사람들보다 다문화 감수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완벽주의와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는 지난 연구들에 의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완벽주의 성격과 문화성향의 조합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 연구는 없었다. 이는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문화 감수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완벽주의)과 환경적 특성(문화성향)은 중요한 변인이며,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전의 연구들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의 경우, 이전 연구들의 대상이 일반 예비교사(김정덕 외, 2011) 혹은 예비 유아교사(이혜원, 2017)였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를 예비 상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실수염려 완벽주의, 개인주의-집합주의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가. 둘째,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합주의의 조합에 따라 형성된 군집들은 다문화감수성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212명의 상담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2부를 제외한 총 209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연구에 관한 소개가 포함된 참여안내 메일을 받고 자발적으로 응한 참여자들로 설문조사를 완료하는 데는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은 24세부터 48세까지의 여자 177명(84.5%), 남자 32명(15.3%)이었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34.5(SD:9.22)였다. 또한 165명(79%)은 석사과정, 44명(21%)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상담경력을 살펴보면 70명(33.5%)이 ‘아예 없음’, 6개월 미만 40명(19.1%), 6개월 이상-2년 미만 41명(19.6%), 2년 이상-4년 미만 17명(8.2%), 그리고 4년 이상에 속한 참가자

가 41명(19.6%)이었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는 Frost 외(1990)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Chung 외(2000)가 검증한 것을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완벽주의를 개인적 기준(7문항), 실수에 대한 염려(9문항), 부모의 기대(5문항), 부모의 비난(4문항), 수행에 대한 의심(4문항) 그리고 조직화(6문항) 등 총 여섯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 실수염려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수염려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Frost 외(1991)의 연구에서 실수에 대한 염려 척도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3이었고, 본 논문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 α)가 .88로 나타났다.

다문화 감수성 척도(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ISS)

다문화 감수성 척도는 Chen과 Starosta (2000)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Kim (2008)이 번안한 척도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된다. 세부 하위요인으로는 상호작용 참여도(7문항), 문화차이 존중도(6문항), 상호작용 자신도(5문항), 상호작용 향유도(3문항), 그리고 상호작용 주의도(3문항)를 포함한다. Chung 외(2019)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상호작용 참여도가 .75, 문화차이 존중도 .71, 상호작용 자신도 .74, 상호작용 향유도 .65, 상호작용 주

의도가 .6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차례대로 .77, .93, .85, .74, .68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문화 성향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riandis(1995)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는데, Kim(1996)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질문지를 본 연구에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적/수평적인 성향으로 세분화 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총 네 가지 성향의 하위요인을 가지는데 ‘수직적 개인주의(8문항)’, ‘수평적 개인주의(8문항)’, ‘수직적 집단주의(8문항)’, ‘수평적 집단주의(8문항)’으로 구성된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다른 성향들에 비해 경쟁적이고 남들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에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수직적 집단주의’의 경우,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하며 ‘수평적 집단주의’는 동료들 사이에서의 평등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협동을 중시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화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riandis(1995)의 연구에서 척도의 네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82(수직적 개인주의), .81(수평적 개인주의), .73(수직적 집단주의), .80(수평적 집단주의)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이들 네 가지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각각 .74, .80, .76, .7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먼저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척도의 신뢰도

를 알아보려고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합주의 유형에 따라 몇 개의 유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의 제안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서 먼저 Wards의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였으며, K-평균 군집분석으로서 최종군집을 확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으로 나뉘어진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합주의 유형의 하위 군집 유형 별로 다문화감수성 하위변인 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Dunnnett T3)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수평적/수직적) - 집합주의(수평적/수직적)에 따른 군집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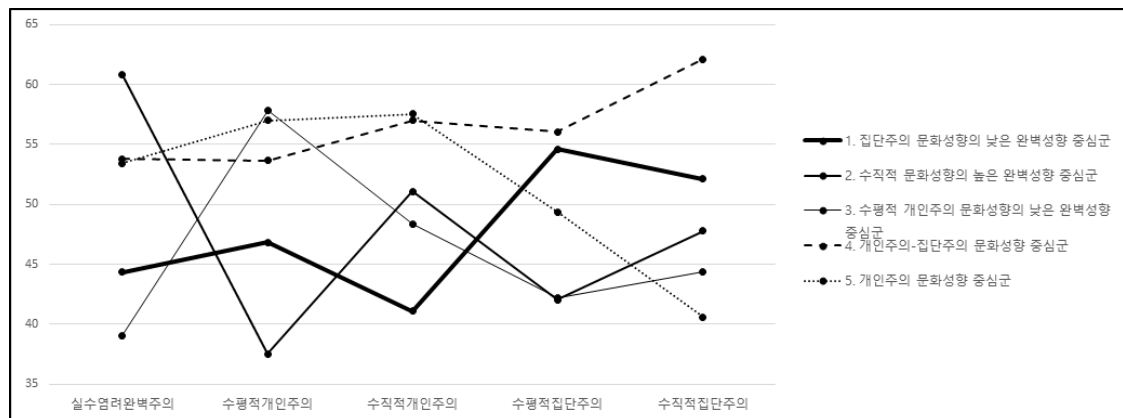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합주의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나타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 상의 계수 변화와 덴드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5개의 군집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나타난 군집별 최종 중심점을 통해 각 군집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각 군집에 할당되는 개체 수가 비슷하고 각 군집별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5개로 군집의 수를 확정하였다. 군집 1은 64명(30.62%), 군집 2는 36명(17.22%), 군집 3은 29명 (13.88%), 군집 4는 40명(19.14%), 군집 5는 40(19.14%)명으

Table 1
Cluster Group Differences on Perfectionism and Cultural Orientation

Cluster Variables		Cluster 1 (n = 64)	Cluster 2 (n = 36)	Cluster 3 (n = 29)	Cluster 4 (n = 40)	Cluster 5 (n = 40)
Perfectionism	Concern Over Mistakes	44.35	60.81	39.05	53.81	53.45
	Horizontal Individualism	46.84	37.51	57.79	53.67	56.98
Individualism	Vertical Individualism	41.08	51.09	48.31	56.98	57.54
	Horizontal Collectivism	54.59	42.04	42.25	56.05	49.38
Collectivism	Vertical Collectivism	52.10	47.77	44.39	62.12	40.59

Note. Cluster Variables are standardized. $M = 50$, $SD = 10$

Figure 1
Cluster Profiles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군집별 특징을 파악하고 군집을 명명하기 위해 표 1에 각 군집별로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각 군집별로 차이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1을 제시하였다.

그림 1에는 군집별로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하여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군집프로파일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특성 및 군집명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수평적, 수직적 집단주의가 높게 나타나고, 실

수염려 완벽주의는 낮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집단주의 문화성향의 낮은 완벽성향 중심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가 모두 나타나며, 높은 실수염려 완벽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수직적 문화성향의 높은 완벽성향 중심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나며 낮은 실수염려 완벽주의의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서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성향의 낮은 완벽성향 중심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모든 개인주의, 집단

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 중심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5는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나며,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으로 ‘개인주의 문화성향 중심군’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유형별 다문화감수성의 차이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합주의 유형에 따라 구성된 5개의 군집들이 다문화 감수성 하위차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Dunnett T3)을 실시하였다. 군집 유형에 따른 다문화감수성 하위차원의 평균·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먼저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자신도’에 있어서 군집 1과 군집 3이 군집 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이는 집단주의 성향이 우세하며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군집 1)과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고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군집 3)이 수직주의가 높고 실수염려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군집 2)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자신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주의도’에 있어서는 군집 5가 군집 1, 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군집 5)이 집단주의가 우세하며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낮은 집단(군집 1) 및 수직주의가 우세하며 실수염려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은 집단(군집 2)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에 있어서 상호작용 주의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참여도’에 있어서는 군집 3, 5가 군집 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이는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낮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군집 3),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인 집단(군집 5)이 수직주의가 우세하고 높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군집 2)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참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문화차이

Table 2
Cluster Group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Cluster Group Differences on Cultural Sensitivity

Dependent Variable	Cluster 1 (n = 64)		Cluster 2 (n = 36)		Cluster 3 (n = 29)		Cluster 4 (n = 40)		Cluster 5 (n = 40)		F	η^2	Dunnett T3	
	M	SD	M	SD	M	SD	M	SD	M	SD				
Cultural Sensitivity	Interaction Confidence	3.52	.57	3.14	.64	3.64	.50	3.45	.54	3.47	.55	3.76**	.069	1,3>2
	Respect for Cultural Difference	4.24	.59	3.93	.69	4.12	.75	4.10	.50	4.25	.59	1.84**	.035	
	Interaction Enjoyment	4.19	.50	4.04	.42	4.37	.48	4.12	.40	4.32	.44	3.16	.058	
	Interaction Attentiveness	3.32	.70	3.29	.63	3.31	.71	3.49	.64	3.70	.60	2.81*	.052	5>1,2
	Interaction Engagement	3.87	.45	3.68	.43	4.05	.47	3.87	.39	3.99	.41	3.76*	.069	3,5>2

** $p < .01$, * $p < .05$

존중도'에 있어서는 군집 1,3,4,5가 군집 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1$). 이는 낮거나 평균 수준의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높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군집2)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문화차이 존중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의 조합에 따라 어떠한 하위집단들이 생성되는지 발견하고, 이들 하위집단 간에 다문화 감수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군집별 군집 명과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집단주의의 두 하위요인(수직주의, 수평주의) 수준이 높은 반면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은 낮게 나타난다. 군집 1에 속하는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은 내담자가 속한 사회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가짐과 동시에 내담자가 갖는 고민이 사회가 정한 범위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은 수용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McCarthy, 2005). 이들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담자와의 소통에 있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이나 염려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단주의가 높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환경이나 문화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집단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이전 연구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Zhang(1994)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상담자는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보다 문화적 정체

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성향이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군집 2는 수직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가 모두 높으면서 실수염려 완벽주의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다. 이 군집에 속하는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고 비판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Frost 외, 1990)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위계적인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담자와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군집 3은 수평적 개인주의가 높게 나타나면서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군집 2와 반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이러한 집단의 상담전공 대학원생은 비완벽적이며 내담자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상담에 접근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는 상담자의 수평적 자세는 상담자-내담자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ang et al., 2014)는 선행연구에 따라 군집 3에 속한 상담전공 대학원생은 다문화 감수성 수준이 높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군집 4는 모든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이다. 즉, 군집 4에 속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은 문화성향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의 문화성향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Triandis, 2001)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다시 말해,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문화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나누는 것보다 개인주의-집단주의가 모두 높거나 낮을 수 있음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고려 또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군집이라 할 수

있다.

군집 5는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개인주의가 높고 평균적인 실수염려 완벽주의 점수를 나타낸 집단이다. 이들을 군집 3과 비교해보면 개인주의의 성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군집 5가 군집 3과 같다. 다만, 군집 3은 수평형인 반면에 군집 5는 수평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특성까지 포함하는 집단으로 수직-집단을 포함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가 우세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에 속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보다 개인이 정한 목표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개인주의 우위’에 바탕을 둔 상담전공 대학원생이 상담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들만의 태도와 가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Nelson & Shavitt, 2002).

둘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자신도’에 있어서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낮은 집단(군집 1, 3)이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집단(군집2)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자신도’가 높았다. 다시 말해, 개인의 주된 문화 성향이 집단주의(군집1)이든 개인주의(군집)이든 간에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문화 간 상호작용 중에 자신감있게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염려 완벽주의의 주된 특성은 실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완벽을 추구하는데 있다. 이러한 특성은 나와는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서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행동적 특징을 보이게 되고 이는 낮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수에 대한 염려를 포함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하는데 방해하는 하나의 성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Wang 외(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완벽주의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집단주의의 환

경적 특성의 조합에 따른 다문화 감수성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세분화하여 차이 검증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Wang 외(2014)의 연구에서는 알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해내었는데, 다문화 감수성 중 ‘상호작용 자신도’의 경우, 실수염려 완벽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인 ‘상호작용 주의도’에 있어서는 개인주의가 높고 평균 수준의 실수염려 완벽주의를 가진 집단(군집 5)가 집단주의가 높은 수준을 가진 집단(군집 1, 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해원(2017)의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데,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문화 감수성과 큰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수염려 완벽주의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집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보다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주의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가 집단의 가치에 목적을 가지는 집단주의보다 문화 간 의사소통 중에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상호작용 참여도’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낮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군집3)이나 개인주의 성향이 높고 평균 수준의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집단(군집5)이 수직주의가 우세하고 높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을 가진 집단(군집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주의, 높은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보다는 수평적 혹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면서 평균적이거나 낮은 실수염려 완벽주의성향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독립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의 특성을 가지면서 실수에 대한 염려 수준이 평균이거나 낮은 상담전공 학생일수록 미래의 상담 장면에서 타문화에 속한 내담자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Nelson과 Shavitt(2002)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주의가 높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타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교류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태도와 큰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차이 존중도’에 있어서는 문화성향에 상관없이 완벽주의 수준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군집 1, 3, 4, 5)들이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은 집단(군집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데 있어서 환경적 특성(문화성향)보다 개인적 특성(완벽주의)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러한 결과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eong(2008)의 ‘개인수준 차이 이론’에 의하면 타문화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 간의 접촉에 의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개인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도 본인과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에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보다 개개인의 수준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이 더욱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상담 전공 대학원생들의 개인적 특성(완벽주의)에 따라서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결과는, 이들이 훗날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와의 관계를 맺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접 다문화 상담을 시행하는 상담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담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고

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설문 대상자는 상담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일종의 동질 그룹으로서 문화성향 차이가 정교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개인적 특성인 완벽주의는 동질 그룹이라 할지라도 뚜렷한 개인수준 차이를 알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선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격과 문화성향의 조합을 통한 유형들을 발견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감수성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상담자는 타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인식, 수용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러한 상담자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완벽주의 성향과 문화성향을 동시에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담자가 다문화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져야 할 필수요소이다. 상담 전공 대학원생이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실수염려 완벽주의의 성격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역할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화성향은 어떠한지와 그 성향의 지향점이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왔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환경적인 특성 또한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단주의 의외에도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실수염려 완벽주의와 개인주의/집단주의적 문화성향의 조합이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차원 별로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이 각각 다르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자신도의 경우, 문화성향이 달라도 실수염려 완벽주의 수준이 높으면 상호작용 자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작용 주의도는 개인주의 성향을 가질수록 다문화 감수성의 상호작용 주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 전공 대학원생이 문화간 의사소통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수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이 집단주의나 수직적 문화성향이 강할 경우보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 시 타인에게 관심과 주의를 보다 많이 기울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문화 감수성 수준을 하위요인별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령, 상호작용 자신도가 낮은 상담전공 대학원생에게는 실수에 대한 염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호작용 주의도가 낮은 이에게는 보다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의 성비가 여자 177명(84.5%), 남자 32명(15.3%)으로 비록 연구 결과에 있어서 남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비를 맞추어서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연 성별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의 조합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수준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의 이론적, 경험적 결과들을 토대로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연구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이 다문화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Kim, K. B. (1996). *The difference between morality and between in-group & out-group in interrelationship: Cultural comparison study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옥순 (2008).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간 감수성 비교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18(1), 193-217.
- [Kim, O. S. (2008). Comparison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between preservice teachers in South Korea and China. *Korea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18(1), 193-217.*]
- 김정덕, 모경환 (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7(3), 193-226.
- [Kim, J. D., & Mo, K. H.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7(3), 193-226.*]
- 변상우 (2020). 상담자의 사회계층 편향성과 내담자 사회계층 배경에 따른 내담자 평가와 역전이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 료, 32(1), 147-172.
- [Pyun, S. W. (2020). Counselors' evaluations of clients and countertransference responses based on counselors' social class biases and clients' social class background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1), 147-172.]
- 이혜원 (2017).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성향과 다문화 감수성의 관계.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16(3), 333-353.
- [Lee, H. W.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sposition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6(3), 333-353.]
- 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1), 421-442.
- [Lim, E. M., Kang, H. J., Kim, S. H., & Koo, J. G. (2018). The development of validation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scale for Korean counselors (KMCC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1), 421-442.]
- 정혜옥, 김경미 (2019). 유아교사의 문화성향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공감 및 다문화감수성의 매개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35(4), 195-215.
- [Chung, H. U., & Kim, K. M. (2019). Effects of cultural orientation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ediated by empathy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4), 195-215.]
- 정승진, 연문희 (2000).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재 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47-167.
- [Chung, S. J., & Yon, M. H. (2000).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reducing the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147-167.]
- 하정희 (2012).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이 자기구실만들기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2), 705-724.
- [Ha, J. H. (2012).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on self-handicapp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705-724.]
- 하정희 (2013).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자기불일치, 편견, 외적동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557-3574.
- [Ha, J. H. (2013). Verific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attitud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ectionism, self-discrepancy, prejudice, external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6), 3557-3574.]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Guidelin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training, research, practice, and organizational change for psychologists*. Retrieved from <http://www.apapracticentral.org/ce/guidelines/multicultural.pdf>.
- Bidell, M. P. (2012). Examining school counseling students' multicultural and sexual orientation competencies through a cross-specialization comparis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2), 200-207.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Constantine, M. G. (2002).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Racial and ethnic minority clients'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ratings of

- their counselors' general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55-263.
- Egan, S. J., Piek, J. P., Dyck, M. J., & Rees, C. S. (2007). The role of dichotomous thinking and rigidity in perfectionis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8), 1813-1822.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Hair, J. F., Jr.,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McCarthy, J. (200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What do they have to do with counseling?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2), 108-117.
- Nelson, M. R., & Shavitt, S. (2002).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achievement values: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Denmark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39-458.
- Oyserman, D., Coon, H. M., & Ki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Ratts, M. J., Singh, A. A., Nassar McMillan, S., Butler, S. K., & McCullough, J. R. (2016). Multicultural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competencies: Guideline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1), 28-48.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29(3), 240-275.
- Stoerber, J., & Otto, K. (2006). Positive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pproaches, evidence, challen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4), 295-319.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Hoboken, NJ: Wiley.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Wang, K. T., Castro, A. J., & Cunningham, Y. L. (2014). Are perfectionism, individualism, and racial color-blindness associated with less cultural sensitivity? Exploring diversity awareness in White prospective teacher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7(3), 211-225.
- Zhang, W. (1994). American counseling in the mind of a Chinese counselor.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2), 79-85.

원고 접수일 : 2020. 06. 24.
 수정원고 접수일 : 2020. 09. 09.
 게재 결정일 : 2020. 09. 28.

Differences in Cultural Sensitivity by Concern Over Mistakes-Perfectionism and Cultural Orientation among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Jung Hee Ha¹ · Hansori Jang²

¹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²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Intervention and Wellness, University of Toledo, Toledo, USA

Bo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comprehending the level of an individual's cultural sensitivity. It would be meaningful to explore how 'concern over mistakes' of perfectionism combined with 'individualism/collectivism' affects cultural sensitivity. A total of 209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to find out how subscales of the cultural sensitivity can differ from the clusters formed by the combination of concern over mistak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groups with high collectivism and low concern over mistake, and those with a high horizontal individualism and low concern over mistakes, are more confident in interaction with cultural sensitivity than those with high verticalism and high levels of concern over mistakes. Second, regarding interaction attentiveness, a group with high levels of individualism with moderate levels of concern over mistakes showed higher cultural sensitivity than those with high levels of vertical collectivism and high levels of concern over mistakes. Lastly, groups showing high horizontal individualism with low and moderate concern over mistakes had higher levels of cultural sensitivity than those with a predominance of verticalism and high levels of concern over mistakes.

Key words : *Concern over mistakes, Cultural Orientation, Cultural Sensitivity*